

■ 권중달 교수의 역사칼럼(64)

退無怨者

퇴 무 원 자

물러가서도 원망하는 사람이 없었다



권 중 달(중앙대 역사학과 명예교수, 삼학교전연구소 소장)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모습은 가관(可觀)이다. 대인(大人) 같은 사람은 별로 눈에 안 린다. 시장바닥에서 머리끄덩이를 잡고 흙탕 속에서 뛰구는 모습이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하는 모습을 보면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잘 골라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대들보를 보지 못하는 소인배(小人輩) 모습이다. 그러하니 국민의 존경을 받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이렇게 어수선할 때 국민적 영웅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민 대다수에게 존경받는 대인(大人)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은 나만의 소망은 아닐 것이다.

각설하고, 10여 년간 출근 진행하던 자치통감 원전 읽기 모임이 코로나 사태로 중단하였다가 여러 사람의 희망에 따라서 자치통감에서 '삼국지연'에 해당하는 부분을 읽기로 하였다. 그래서 자연스레 후한의 뒷부분 영제(靈帝)의 말년부터 읽기 시작하였다.

영제(靈帝) 중평 4년(서기 187년) 조에 전 태구현(太丘縣)의 현장(縣長)이던 진식(陳寔)이 죽었다는 사건이 실려 있다. 그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에서 그를 조문하려고 온 사람이 3만여 명이었다. 사실 진식은 관원 가운데 하급직이라 할 현장(縣長)을 끝으로 고향인 하남(河南)의 하현(縣)에 머무는 퇴직 관원이었다. 그런 그가 죽었는데 전국에서 조문하려는 사람이 구름처럼 몰려왔다니 보통 일은 아녔다.

그에 관한 일화도 실려 있는데, 그가 고향에 가 있는데 그곳 사람들 사이에 고소하고 다투는 일이 있게 되면 두 사람이 합의(合意) 아래 진식에게 가서 물어봐 판단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다. 이때 진식은 구부러진 것을 바로 잡고 사리를 분명히 깨우쳐 주고 판단해 주었는데 이를 듣고 물려가서 진식이 잘못 판단하여 억울하게 되었다고 원망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차리며 형벌을 더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진군(陳君, 진식)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하는 지적을 받고 싶지는 않다."라고까지 하였다니 그는 존경 받는 인물임에 틀림없다.

만약에 이런 사람이 높은 관직을 가지고 정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었다면 훈란한 후한의 사정은 좀 안정되었고 한의 운명도 기울이지 않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그는 선택을 받지 못하였고 고작 현장으로 끌나야 했다. 왜 그랬을까? 이

때에 모든 관직은 외척이나 환관이 뇌물을 받고 관직을 팔았고 황제인 영제(靈帝) 조차 스스로가 관직을 팔고 있었다. 예컨대 태수직(太守職)은 2천만에서 3천만 전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식 같은 사람이 관직을 사려고 줄을 대지 않았을 터였으니 현장에 그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 시기에 태수라도 하고 싶은 사람은 궁궐로 달려가 서원(西園)에서 먼저 돈을 내고 나서야 임명되었다. 이렇게라도 관직을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직위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좌취할 수 있었고, 그 때문에 비록 3천만 전을 내고 관직을 얻어도 남는 장사여서일 것이니 악착빠른 인간들이 관직을 사려고 하지 않았을까?

황제가 파는 관직은 지방관만이 아니었다. 삼공(三公)이라는 최고의 관직도 돈을 받고 팔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황건란은 일어났고 어수선 하자 그래도 나라를 안정시켜야 했고, 그러자면 그래도 유능한 사람을 삼공 자리에 두어야 했던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명성 있는 진식의 사촌 형인 진열(陳烈)을 사도(司徒)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그냥 임명한 것이 아니었다. 많이 깎아 쥐서 5백만전만 받았다. 임명하는 날 백관이 다 모이고 진열을 사도로 임명하는 자리에서 영제는 5백만으로 깎아 준 것이 못내 아쉬웠는지 아주 가까이하는 사람에게 살짝 '아깝다. 1천만은 받을 수 있었을 텐데...'라고 하였다.

이러고도 왕조가 무사할 까닭은 없다. 백성들은 살기 힘들어지자 의지할 곳을 찾았다. 마침 몇 개의 주문(呪文)만 외우면 병이 낫는다고 하는 장각(張角)에게 사람들은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이들이 드디어 뭉쳐서 반란을 일으켰고, 끝내 후한의 삼국지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물론 얼마 후 4백년을 지탱해 온 한왕조는 무너졌다.

그러나 이 훈란 속에서도 아무런 바탕이 없었던 유비(劉備)가 등장한다. 그는 인재의 필요성을 느껴서 인재의 영입에 온 힘을 기울였다. 이와 관련된 유명한 고사는 제갈량을 책사로 모시기 위해 삼고초려(三顧草廬)했다는 이야기이다. 아무런 배경을 갖지 못한 유비는 제갈량을 모시는 바람에 배경이 튼튼했던 조조와 손권과 천하를 3분하고 황제에 오를 수가 있었던 것은 다 아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한왕조를 물려받은 영제는 진식 같은 인재가 있어도 모시

지 못했고, 그 4촌 형에게도 돈을 받고 삼공을 팔았으니 성공할 까닭은 없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은 후한의 영제(靈帝) 시절보다 나을까? 역전부터 시장이 되고 지사가 된 사람이 개발이라는 미명(美名)을 앞세워 개발 사업을 벌이게 하여 천문학적인 돈을 업자에게 남겨주고 반대급부로 이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아직 재판 중이어서 결론은 안 났지만 이러한 말이 회자되는 것만으로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그 사건과 관련된 사람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해 주고 50억씩을 받았다고 하여 50억 클럽이란 말까지 나왔다.

이들만 그럴까? 정치한다는 사람들에게 내년 선거를 앞두고 출판기념회를 갖는다는 소식이다. 그 책에 무엇이 쓰였는지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를 계기로 책값이란 명목으로 돈을 받아 행길 수 있다는 것이다. 누가 와서 책을 살까? 정치하는 사람에게 줄을 대어 보려는 것이 아닐까라고 짐작된다. 이들이 후한의 영제이고 환관이고 외척이며, 돈을 주고 관직을 사는 사람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의 상황은 녹녹하지 않다. 국제적으로 점점 더 경쟁은 심해지고, 북한에서는 공공연하게 핵무기를 개발하고 ICBM을 쏘아대는데, 이에 대처할 책임을 진 사람들이 이처럼 부패의 사슬로 묶여 있으니 이들에게 희망을 가질 수 없다. 이 위기를 구할 사람은 없는 것일까? 없을 까닭이 없다.

영제 때 진식(陳寔)은 많은 인망을 가진 사람으로 시골 고향에 묵혀 있었다. 유비시절에는 초려(草廬)에 묵혀 있는 제갈량(諸葛亮)이 있었다. 영제는 진식을 모셔오지 못하였지만 유비는 제갈량을 모셔왔다. 결과는 진식을 못 모신 후한은 멸망하였고 제갈량은 모신 유비는 천하를 3분하고 촉한의 황제가 되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어느 곳도 신뢰할 수 없다고. 후한의 상황과 흡사하다. 이 시대를 구할 인재가 없을까? 영제 때에는 진식은 있었고 유비시절에는 제갈량이 있었다. 지금도 쓸 만한 인재는 진식이나 제갈량처럼 모두 숨어져내는 것은 아닐까. 현재 드러난 사람은 3천만 전을 주고 태수직을 사서 본전의 몇 배 몇십 배를 벌고 싶어 하던 관리 비슷한 사람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본다. 내년 4월이면 총선이다. 인재를 뽑을 기회다. 주권자들이 유비 같이 숨겨진 진정한 인재를 알아보고 뽑았으면 좋겠다.



본지 않았나 하고 말한다. 권 이사가 총무국장과 부회장 4명을 영입하고 서울시장을 찾아가 대면하여 운동장 허가까지 받은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기에 권이사의 폭넓은 대인 관계와 대종회에 대한 열정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러나 권이사는 한 가지 못한 것이 있어 아쉬워한다. 현재 대종회 운영상태는 임대료, 종보수익금으로 부족하여 각종 회비 등, 후원금으로 운영되지만 이것은 안정적인 운영이라 할 수 없기에 현 위치에 대종회 건물을 철거 신축하여 여기서 발생된 임대료 수익금으로 운영되었을 때 안정적인 운영으로 생각하고 신축에 대한 개설제도까지 만들었지만 추진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해 아쉽다고 한다.

현 대종회 위치는 전철 1호선 제기동역 초역세권으로, 신축되었을 때 1개 층은 대종회 사무실로 사용, 나머지 층은 임대했을 때 월 임대료 1,200만원 정도 예상되는, 당시 부동산 업자와 시장조사를 한 금액이며 신축을 한다면 수익이 좋은 위치라고 하며 지금이라도 했으면 한다.

그리고 한 가지 공개 제안도 한다. 지금까지 사용되는 안동권시 청·장년회 전국 체육대회를 권문가족 전국 체육대회로 대회 명칭을 바꿀 것을 제안한다고 한다. 그 이유는 청·장년은 남성만 강조되는 단어이고 여성은 제외되는 말인데 실제는 남녀노소 맘 그대로 권문가

복야공파 파조 추향제 봉행

복야공파종회(회장 권세목, 37세)는 11월 14일 안동시 서후면 교리 복야공파조(회장 수홍수, 10세) 단소에 2023년 향사를 봉행하였다.

참여 인원은 80여 명이었다. 초현관 권대직(權大直, 36세), 아현관 권태윤(權泰潤, 33세), 종현관 권영현(權英鉉, 35세), 축 권택호(權宅鎬, 37세), 찬자 권갑현(權甲鉉, 35세)으로 분정하여 행공하였다.

권갑현 편집위원장



추밀공파 평후공 추향제 봉행

추향제가 11월 15일(수)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단소에서 후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봉행되었다. 초현관 권오열, 아현관 권병구, 종현관 권순철, 집례 권창식, 대축 권혁윤 등으로 분방하여 현작하였다. 평후공은 1372년(공민왕 21년)에 벼슬길에 올랐으나 공민왕이 시해되고 정국이 혼란하자 과감히 벼슬을 버리고 경기도 연천 적성 귀연(鶴淵)이라는 곳에 은둔한다.

여성혁명에 성공한 이성계는 민심을 얻기 위해 명문가 자제들을 새 왕조에 참여시켜 노력하였다. 더구나 평후공의 부친 정간공(靖簡公, 權愬)과는 막역한 동네 친구였으므로 친구의 아들 공경공(恭景公) 화(和), 평후공(平厚公) 총(衷), 문충공(文忠公) 근(近), 매현공(梅軒公) 우(遇) 4형제가 어떻게든 신왕조에 출사하기를 고대하였다.

두 집안의 관계는 세종이 평후공이 별세하자 "우리 태조의 용잠(龍潛: 즉 위하기 전을 말함) 시대를 당하여 일찍 지우(知遇) 하심을 입어, 사절을 다



하여 충성을 바치매, 네 번 정별에 호종(扈從)의 공로가 있었다"(1423년. 실록 세종 5년 11월 26일)는 제문을 보더라도 그 관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인연으로 평후공은 출처를 고민한 끝에 부친을 위해 출사하기로 마음먹고, 출사 후 공조판서, 의정부찬성사 등을 역임했다. 특히 경남 진주 판목(判牧)으로 있을 때 그 유명한 촉석루를 지었다. "시호를 평후(平厚)라 하니,

묘소는 경기도 장단군 점원리 남북 군사분계선 안에 위치하고 있어 일체의 출입과 성묘를 할 수 없으므로 후손들은 1978년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가야리에 설단하여 향사를 받고 있다.

권행완 편집국장

백록서원 남강공 권상 추향제 봉행

남강공(南岡公) 권상(權常, 추밀공파 정현공, 21세) 추향제가 10월 30일 충북 청주시 옥산면 환희3길 38-20에 위치한 백록서원(白鹿書院)에서 남강공 종회 권동욱 회장, 권영식 도사공 종회 회장 등을 비롯하여 많은 후손(後孫) 및 지방 유림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되었다.

백록서원은 남강공의 다섯째 아들 충정공(忠貞公, 권립, 22세)의 둘째 아들 도사공(都事公, 권필종, 23세)이 청주 옥산면 입향조로 들어와 세거하면서 그 후손들이 지방 유림들이 남강공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고자 1710년(숙종 36)에 창건했다.

1868년(고종 5)에 대원군의 서원철 폐령으로 훼철되었다가 광복 후 유림과 후손들이 협력하여 복원하였으며 1965년에 보수하였다.

현재 백록서원(白鹿書院)은 향토유



적 제96호로 지정되어 보전 관리되고 있다. 남강공은 후손들에게 심중대역 경세언인(心中大德經世彦) 8자로

유훈(遺訓)을 내려 후손들 향렬자(行列子)로 쓰도록 하였다.

권규택 이모트랜스코리아 대표이사

중랑장공 배위 숙인 경주김씨 묘 이장

죽이 참여하는 대회니 시대에 맞게 바꾸어야 한다고 말한다. 글자 몇 자 바꾸면 되니 내년 2024년 안동대회부터 실행되있으면 한다.

가족관계로는 외아들(세호), 며느리, 손녀, 손자가 서울에 살며 아들은 AI전문기술로 특허청 대행업체인(주)월스에서 팀장으로 제직 중이며 며느리는 과학기술 담당관으로 주한네덜란드 대사관에서 무역 및 경제 관련 국제문제 대응 등으로 국외선양으로 열심히 해야 한다고 할 편대회기도 하지만 때로는 두 아이의 어머니로, 가정 직장 1인 3역으로 힘들어할 편 안쓰럽기도 하면서 권이사는 하루 일과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2년간 전해주는 돌봄 이모가 매일 전해주는 손녀, 손자 생활 모습 보는 것이 즐겁다고 한다.

그리고 한 가지 공개 제안도 한다. 지금까지 사용되는 안동권시 청·장년회 전국 체육대회를 권문가족 전국 체육대회로 대회 명칭을 바꿀 것을 제안한다고 한다. 그 이유는 청·장년은 남성만 강조되는 단어이고 여성은 제외되는 말인데 실제는 남녀노소 맘 그대로 권문가



파묘 고우



파묘사진



합평고우

토를 수습하여 칠성판에 모시고 고위 묘에 합장한 후 묘전에 고유하고 산신 고유를 올린 후 12시경 행사를 모두 마치고 시내 제비원가든에서 점심을 들면서 선조님의 은덕을 기렸다.

중랑장(16세, 휘: 후후)의 후손은 안동 송야, 풍산, 도촌, 달실, 막길, 신한 등에 풍성촌을 이루고 있으며 공께서는 청신교위로서 응양위에 들었고

권오의 사무국장 안동사무소